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四十八願

김 양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수료)

I. 들어가는 말

정토사상의 교학적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단연 통일신라 시대였다. 비단 정토사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서적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승려들은 이를 앞 다투어 연구하였다. 더욱이 외래사상이었던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승려들도 상당수였고 그곳에서 이름을 날린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중국에 불교를 전해주었던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해 오는 승려들조차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불교가 한갓 외래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진문물이며 고차원적인 사상이라는 인식에서 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외래사상이었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 선진문물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도 통일신라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복잡한 교리의 이해가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대중화의 중심에는 아미타 신앙과 미륵 신앙이 있었고, 정토사상은 이러한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교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상이었다.

아미타 신앙이나 미륵 신앙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으며, 정토사상에 대한 교학적 연구는 몇몇 저술 목록 등을 통해서 다수의 저술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정토사상에 대한 교학적 연구의 흔적

은 일본 정토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인용장구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일본 사상가들의 저술에 인용되어 복원이 되는 저술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는 정토사상에 대한 교학적인 연구와 신앙적인 대중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게다가 현재는 전해지지 않지만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방대한 주석서가 사상계통이 서로 다른 승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¹⁾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정토사상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이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칭명염불을 강조하는 善導 이후 정토사상은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더욱이 自力을 강조하던 불교의 다른 사상들과는 달리 他力을 강조하는 정토사상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노력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나라 불교계가 정토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결정짓게 되

1) 통일신라시대의 정토경전의 연구는 경전목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慈藏 阿彌陀經疏 1卷, 阿彌陀經義記 1卷
 圓測 阿彌陀經疏 1卷, 無量壽經疏 3卷
 元曉 阿彌陀經疏 1卷, 阿彌陀經通讚疏 2卷, 阿彌陀經疏 1卷, 無量壽經宗要 1卷, 無量壽經私記 1卷, 無量壽經科簡, 遊心安樂道 1卷
 義湘 阿彌陀經義記 1卷
 憬興 阿彌陀經略記 1卷, 無量壽經連義述文贊 3卷, 無量壽經疏 3卷, 觀無量壽經疏 2卷
 義寂 無量壽經疏 3卷, 無量壽經述義記 3卷, 觀無量壽經綱要 1卷, 觀無量壽經疏 1卷
 道證 西方極樂要讚 1卷
 太賢 阿彌陀經古述記 1卷, 無量壽經古述記 1卷, 觀無量壽經古述記 1卷, 稱讚淨土經古述記 1卷, 淨土總料簡 1卷
 法位 無量壽經義疏 2卷
 玄一 阿彌陀經疏 1卷, 無量壽經記(疏) 2卷, 觀無量壽經記 1卷, 隨願往生經記 1卷
 道倫 阿彌陀經疏 1卷
 靈因 無量壽經疏 1卷

었다고 본다.

타력을 중시하는 정토사상이 결이 다른 사상들과 어떻게 공존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들의 저술을 살펴본다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저술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것은 元曉의 『無量壽經宗要』, 『阿彌陀經疏』, 원효의 저술로 알려진 『遊心安樂道』,²⁾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玄一의 『無量壽經記(上卷)』와 일본 저술에 인용된 것을 통해 복원된 法位の 『無量壽經義疏』와 義寂의 『無量壽經述義記』가 있다.

본 考에서는 이 가운데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讚』(이하 『連義述文讚』)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慧遠의 『無量壽經義疏』, 吉藏의 『無量壽經義疏』,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와 더불어 무량수경의 4대주석서로 불리는 『연의술문찬』은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정토경전 관련 주석서 가운데 양적으로도 가장 풍부하다. 그 중에서도 정토사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아미타불의 48원을 주석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경홍이 정토사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II.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四十八願 解釋

本願³⁾ 혹은 誓願⁴⁾은 대승불교의 중심 개념이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

2) 원효의 저술로 기록되어 있으나 진찬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위찬으로 단정하기보다 『무량수경종요』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3) 本願이란 Pūrva-Pranidhana, Prapīdhāna, Prapīdhis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외에도 citta-Prapīdhāna, citta-Prapīdhi의 번역어로도 사용된다. 아미타부처님이 세자제왕부처님 앞에서 중생의 구제를 위하여 세웠던 서원처럼 過去世에 중생 구제를 위하여 세운 서원을 本願이라고 부른다.

4) 경홍은 誓를 ‘邀制義’, 願을 ‘梯求義’라고 하면서, 48원을 시작하는 어구인 ‘設我得

과 아울러 보다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서원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서원의 주체이며, 그 회향처는 중생이다. 여러 대승경전에서 여러 부처님의 서원이 나타나는데 모두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이다. 중생을 회향처로 하지 않는 서원은 더 이상 서원이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량수경에도 아미타불이 정토를 건립하기 위해 세운 48원이 등장한다. 과거세에 범장비구였던 아미타불이 세자재왕불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수행을 통해 정토를 건립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이곳에 왕생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무량수경의 내용이다. 그러나 48이라는 숫자는 무량수경의 여러 경본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48원에 대해서 경홍은 어떤 주석을 달았는지 살펴보자.

1. 48원의 구성과 순서

경홍은 『연의술문찬』을 저술할 때 法護本을 중심으로 주석하면서 帛延本⁵⁾과 支謙本⁶⁾의 내용을 함께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범장비구의 발원을 이 세 經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본에 따라서 서원의 수와 그 구성 및 순서가 같지 않다. 즉, 범호본의 서원은 48개지만 백연본과 지겸본은 모두 24원뿐이며 서원의 순서도 다르고 서원간의 출입도 보인다.⁷⁾

경홍은 경본 사이의 서원의 수나 구성 및 순서가 다른 이유로 臺本이 되는 범본의 갖추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 같은가 하

佛' 願이며, 끝맺음하는 어구인 '不取正覺'은 誓라고 하였다.

5) 『無量清淨平等覺經』(『大正藏』 12)

6) 『大阿彌陀經』(『大正藏』 12)

7)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卷中(『韓佛全』 2, 46c-47a)

8) 경홍은 帛延本과 支謙本이 48원을 갖춘 法護本으로부터 서원을 취하여 24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경전성립발달사의 차원에서 보면 48원경은 24원경 이후

는 질문에 작은 願行으로는 道를 이룰 수 없다는 차원에서는 모두 같으나, 교화할 중생의 근기와 인연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은 정도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다고 대답함⁹⁾으로써 경홍이 48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홍은 무량수경의 48원을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불신을 구하는 원(求佛身願), 둘째, 불토를 구하는 원(求佛土願), 셋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利衆生願)이 그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은 慧遠이나 吉藏¹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혜원의 경우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데¹¹⁾, 求佛身願을 攝法身願이라 하여 제12, 13, 17원에, 求佛土願을 攝淨土願이라 하여 제31, 32원에 배정한 뒤 나머지 43원을 경홍이 利衆生願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의미인 攝衆生願이라고 불렀다.

또 경홍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는 뒤 다시 세분하여 일곱 부분으로 묶어서 정리¹²⁾하였다. 혜원이 일곱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 역시 경홍과 비슷하다. 다만 이 일곱 부분을 다시 세분할 때 다섯 번째 섭중생원에 속하는 열 세 가지 원을 다시 분류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¹³⁾ 경홍은 혜원의

에나 성립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이라고 한다(望月信亨, 『淨土教の起源及發達』(東京: 山喜房佛書林, 1977).

9)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0c), “問諸佛本誓爲同爲異 異卽違華嚴云一切諸佛悉具一切願滿方得成佛故 若同者亦違藥師十二本願彌陀四十八願故 答無有一佛少一願行而成道者故悉同也 然以對所化之機緣熟不同故”

10) 길장의 경우 셋으로 분류하는 것만 같을 뿐이고 내용의 구체적인 분류방법이 달랐다. 『無量壽經義疏』 卷上(『大正藏』 37, 121b), “但此願分爲三類明之有三願 願淨土有四十二願 願得眷屬有三願 願得法身三 此三文不聚在一處 但隨義作之耳”

11) 『無量壽經義疏』 卷上(『大正藏』 37, 103b), “義要唯三 文別有七 義要三者 一攝法身願 二攝淨土願 三攝衆生願 四十八中 二十三及第十七 是攝法身 第三十一 第三十二 是攝淨土 餘四十三 是攝衆生”

12)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a), “一初十一願願攝衆生 二次二願願攝佛身 三次三願願攝衆生 四次一願願攝佛身 五次十三願願攝衆生 六次二願願攝佛土 七後十六願願攝衆生”

13) 경홍은 제18,19,20원을 攝人天願에 제22-30원을 攝菩薩願에 배당시키고, 攝菩薩願은 다시 攝他國菩薩願(제22원)과 攝自國菩薩願(제23-30원)으로 나누는데 비해, 혜

48원 분류 방식을 거의 따르고 있다.

2. 경홍의 48원 해석의 주안점

경홍은 이 주석서를 저술할 당시 이미 기존의 주석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어 비교하고 비판하였다. 대개의 주석서들에서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서원에 대해서는 서원의 이름만을 부여했을 뿐이지만 의견이 분분하거나 기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 인용하거나 ‘有說’ 혹은 ‘有難’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인용한 후 비판하였다. 경홍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역시 다른 주석가의 저자들도 역시 자세히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홍은 48원 가운데 어떤 서원에 관심을 보였을까? 주석문의 길 이로만 보아도 원명만을 언급한 대부분의 서원에 비해 제1원, 제10원, 제11원, 제18원, 제19원, 제20원, 제35원, 제48원은 비교적 긴 주석이 달려있다. 이 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제1원의 경우 첫 번째 서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48원에 대한 세 가지 經本의 상위점에 대해서 짚고 있는 부분이다. 48원의 체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는 앞에서 다루었다.

제10원과 제11원은 ‘得心樂願’ 가운데 ‘漏盡樂’을 다루고 있다. 제10원은 漏盡의 體로서所知障과煩惱障의 두 가지 장애를 들고 있다. 이 두 장애를 다하여야 번뇌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제11원은 漏盡의 位를 다룬 願으로서 ‘十信以去’를 正定聚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는 원효가 『遊心安樂道』에서 十解 가운데 第一心인 ‘菩薩初發心住’부터를 정정취로 하

원은 제18-20원을 攝他國衆生願, 제21원은 攝自國衆生願, 제22원은 攝他國衆生願, 제23-30원은 攝自國衆生願이라고 하였다.

14)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a), “十信以去皆名正定聚故”

는 것과 같다.¹⁵⁾

제11원에서 정도에 왕생하는 중생은 모두 正定聚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정정취에 속하는 중생의 계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도에 왕생할 수 있는 중생의 근기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경홍은 그 지위를 십신이 후라고 보았다. 정정취의 계위 문제는 중생의 往生因果 문제를 다룬 『連義述文讚』 卷下の 첫 부분¹⁶⁾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곳에서도 역시 ‘有說’로 시작하는 다른 주석서의 의견 네 가지를 정도에는 정정취만 있다는 점과 정정취에 속하는 중생은 십신이하라는 점을 들어서 모두 비판한다.¹⁷⁾

제19원은 ‘來迎引接願’으로 불리는데 임종시에 정도왕생자를 聖衆이 맞이하도록 세운 서원이다. 경홍은 만약 ‘菩提心’을 발하지 않으면 성인들이 맞이하지 않는 것이 경의 설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48원은 ‘得三法忍願’으로 불리는데 경홍은 ‘自力不退願’이라 하여 자력으로 수행하다가 물러나는 보살들로 하여금 三法忍을 얻게 하려는 서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경홍은 三法忍이 伏忍三位¹⁸⁾의 삼법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설¹⁹⁾에서 주장하듯이 『仁王般若經』의 五忍 가운데 伏忍, 信忍, 順忍을 三法忍이라고 한다면 보살 初地, 二地, 三地를 의미하는 信忍과 四地, 五地, 六地를 의미하는 順忍이 부처님의 명호만 듣고 얻을 수 있는 계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²⁰⁾

15) 安啓賢, 『憬興의 彌陀淨土往生思想』, 『新羅淨土思想史研究』(서울: 현음사, 1987), 149쪽

16)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下(『大正藏』 37, 158a-b), “有說善趣已前名爲邪定……唯有正定聚而無餘二也”

17) 安啓賢, 위의 책, 148쪽 표 참고

18) 伏忍三位: 五忍 가운데 첫 번째. 십지 이전 삼현의 사람이 아직 無漏智를 얻지 못했을 때 다만 수행을 통해 有漏勝智로 번뇌를 조복시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 것을 伏忍이라고 한다. 이를 상, 중, 하의 삼품으로 나눈다. 하품은 十住位, 중품은 十行位, 상품은 十回向位이다.

19) 『無量壽經記』 卷上(『韓佛全』 2, 241c-242a), “言第一第二第三法忍者法位云案仁王經有五忍……謂音響忍柔順忍無生忍是也”

20) 이는 제11원에서 정정취가 十信以去, 즉 十解(十住)부터라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원들보다 훨씬 긴 주석문이 달려있는 세 가지 원, 즉 ‘念佛往生願’이라고 불리는 제18원과 ‘係念定生願’이라고 불리는 제20원, 그리고 ‘女人往生願’이라 불리는 제35원을 차례로 살펴보자.

1) 제18원

제18원은 ‘念佛往生願’으로 48원중 가장 긴 주석이 달려있다. 염불왕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원한 것이므로 정토사상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이기도 하고, 『관무량수경』과 ‘五逆者’의往生에 대한 입장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다. 더욱이 사상적인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원이라서 길게 다루고 있다. 먼저 무량수경 본문을 살펴보자.

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唯除五逆 誹謗正法²¹⁾

만약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내지 십념까지 하였는데도 왕생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오직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제18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乃至十念’과 ‘唯除五逆 誹謗正法’의 해석 부분이다. 과연 十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정토왕생에서 제외되는 중생은 어떤 중생인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특히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경홍은 有說로 시작하는 14가지 주장을 하나 하나 비판하고 있다.

(1) 제18, 19, 20원이 각각 下品, 上品, 中品이라는 주장

경홍은 제18, 19, 20원은 往生者에 대한 해석이며, 각각 上品, 中品, 下品の

21)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268a)

중생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 만약 제18원이 하품중생에 대한 서원이라면²²⁾ 『관무량수경』에서 下品下生の 왕생을 다룬 부분에서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임종시 칭명염불을 통해 심념을 구족하면 念마다 80억겁의 생사의 죄를 멸하게 되어 결국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²³⁾ 하는 주장에 어긋난다고 한다.²⁴⁾ 이 부분은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의 차이로서 다시 다루게 된다.

(2) 『觀無量壽經』의 ‘具諸不善’이라는 표현이 모순이라는 주장

『觀無量壽經』에서 五逆十惡의 죄를 지은 자를 비롯하여 모든 불선한 업을 행한 자들도 칭명염불을 통해 정토에 왕생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오역죄를 지은 자만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고 『觀無量壽經』을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서, 만약 『觀無量壽經』의 ‘具諸不善’이 정법을 비방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오역죄도 포함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²⁵⁾ 만약 정법을 비방하는 자라면 칭명염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懺悔의 有無 문제

元曉는 『無量壽經宗要』에서 『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는 자를 왕생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지었지만 참회하였기 때문에 왕생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⁶⁾ 그러나 『관무

22) 義寂은 『無量壽經連義述文讚』(復元本)에서 제18,19,20원이 각각 하품, 상품, 중품의 설이라고 주장하였다.

23) 『佛說觀無量壽經』(『大正藏』 12, 346a), “或有衆生作不善業五逆十惡具諸不善……是名下品下生者是名下輩生想名第十六觀”

24)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b), “有說初下品次上品後中品非也 非唯亂次第亦違觀經不除五逆故 然彼經云作五逆罪得生淨土 違此顯云唯除五逆誹謗正法故 從昔會釋自成百家”

25)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b), “有說亦謗正法者除唯造五逆者生 有難此言彼經亦云具諸不善 若不謗法即不可言具諸不善 如何乃言唯造五逆得生淨土 此難非也 若謂彼經具諸不善故亦攝謗法者即五逆應屬諸不善故 不須別說”

량수경』에서 이미 십념 가운데 능마다 각각 80억겁의 생사의 죄를 멸한다고 하므로 미땅히 참회와 불참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만약 다시 별도의 참회법이 있다고 한다면 下品下生을 위해 설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반박한다.²⁷⁾

(4) 未造已造 문제

어떤 설²⁸⁾에서는 아직 오역죄를 짓지 않은 자는 왕생에서 제외되고 이미 오역죄를 지은 자는 왕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善導의 설로서 타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아미타불의 大悲는 오역죄를 이미 지은 자조차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경홍은 이미 죄를 지은 자가 왕생할 수 있다면 아직 과실이 없는 자는 당연히 왕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반문한다.²⁹⁾

(5) 正五逆者와 五逆類者

어떤 설에서는 오역죄인(正五逆者)은 왕생에서 제외되지만, 오역죄와 유사한 죄를 지은 자는 왕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경홍은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도 오역죄와 유사한 것을 오역죄라고 부른 경우는 없기 때문에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五逆이 오역죄와 유사한 것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주장

26) 『無量壽經宗要』(『大正藏』 37, 129b), “彼觀經中不除五逆唯除誹謗方等之罪 今此兩卷經中說言除其五逆誹謗正法 如是相違云何通者 彼經說其雖作五逆依大乘教得懺悔者 此經中說不懺悔者 由此義故不相違也”

27)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b), “有說此除不悔彼之說悔此亦不然 既十念中念別滅八十億劫生死之罪 應無悔與不悔別故 若更有別懺悔法者 卽於下品下生文中都無故”

28) 『觀無量壽經疏』 卷四(『大正藏』 37, 277a-b), “問曰 如四十八願中唯除五逆誹謗正法不得往生 今此觀經下品下生中簡謗法攝五逆者 有何意也 答曰 ……此就未造業而解也 若造 還攝得生”

29)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對未造者言除對已造者說生 此亦不然 未造者尙除況亦已造 故若已造令進故無此失者未造應令退耶”

한다.³⁰⁾

(6) 重心造者和 輕心造者

어떤 설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왕생에서 제외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왕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경홍은 이에 대해서 정법을 비방하는 데는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때문에 왕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³¹⁾

(7) 第三階教를 끌어 들인 주장

어떤 설³²⁾에서는 삼계교도로서 오역죄를 지은 자는 왕생에서 제외되며, 제2계로서 역죄를 지은 자는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三階教³³⁾인이라고 인정한 자가 普法³⁴⁾을 행하지 않으면 역죄를 지었든 그렇지 않든 모두 왕생을 할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제3계교만 제외한다고 설해야 하며, 역죄를 지은 자를 제외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30)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正五逆者除五逆類者生此亦不然 無有聖教說五逆類名五逆故 不可彼經五逆言類”

31)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重心造者除輕心造者生歟 此亦不然 誹謗正法必有輕重 不可唯言除不生故”

32) 懷感, 『釋淨土群疑論』 卷三(『大正藏』 47, 45a)

33) 第三階教: 삼계교, 혹은 제삼계종, 삼계종, 보법종이라고도 한다. 수대 信行(540-594)이 창시하였다. 중당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했던 불교종파. 신행은 자칭 일승보살이라고 하여 구족계를 폐하고, 고행과 인욕을 강조하였다. 노역을 하고 걸식으로 살아갔다. 일일일식하였다. 우상숭배를 반대하여 탑에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일체중생이 모두 참부처님이라 하였다.

34) 普法: 삼계교에서 주장하는 제1계와 제2계는 특정대상에 한정된 법이라면, 제3계는 일체중생에 두루 미치는 원융한 법을 일컫는다.

35)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除即第三階造五逆者生即第二階造逆者 此亦不然 衆生有三非聖教故 設有聖說亦違自許第三階人不行普法有逆無逆皆不得生 若如所言應說唯除第三階而言除逆唯有虛言故”

(8) 先遮後開의 주장

어떤 설에서는 왕생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함(先遮)이고,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어주기 위함(後開)이라고 주장하였다. 경홍은 결과적으로 미리 막는다는 말은 왕생함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열어 준다는 것은 왕생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한다.³⁶⁾

(9) 發菩提心과 왕생

어떤 설에서는 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역죄를 짓는 자는 왕생에서 제외되고, 이미 보리심을 발한 상태에서 오역죄를 지으면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보리심을 발한 자가 물러나게 된다면 이는 마땅히 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왕생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물러남 없는 마음이라면 역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⁷⁾

(10) 五逆罪決定不定問題

어떤 설³⁸⁾에서는 『무량수경』에서 실한 오역죄가 전회의 가능성 없이 결정적인 것이라서 왕생에서 제외된 것이고, 『관무량수경』에서 실한 오역죄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홍은 왕생 후에도 업 등을 받게 되면 이 오역죄에 대한 과보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열거해야 하므로 큰 과실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³⁹⁾

36)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除者先遮生者後開 此亦非也 先遮若實生後開實應不生故”

37)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 “有說未發菩提心造逆者除已發菩提心作逆者生 此亦不然 已發菩提心若退失者應如未發心不得生故 若不退心者必不作逆故”

38) 義寂의 ‘五逆誹謗正法者’에 대한 논의는 안계현의 ‘義寂의 彌陀淨土往生思想’, (앞의 책 232-237쪽)을 참조할 것.

(11) 宿世에 道の 根機가 없는 자

어떤 설⁴⁰⁾에서는 만약 속세에 도의 근기가 없는 자가 이미 오역죄를 지었다면 끝내 왕생할 수 없는 게 이치라고 주장한다. 善趣의 사람으로서 앞서 보리심을 발한 자는 비록 다시 어떤 조건을 만나 오역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깊은 참회를 하기 때문에 또한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홍은 이에 대해서 속세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지금 보리심을 발하여야 하며, 그 경우 조건을 만나 역죄를 지었어도 마땅히 또한 왕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 선취라고 하면 十信인데 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⁴¹⁾

(12) 一念念佛者와 十念念佛者

어떤 설에서는 일념동안 염불하는 자는 제외되고, 십념동안 염불하면 왕생한다고 주장한다. 경홍은 이러한 주장은 『무량수경』에서 설한 ‘乃至十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²⁾

(13) 十聲과 十念

어떤 설에서는 십념을 갖추었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十聲을 갖추지 않으면 왕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즉 칭명정인설을 주장하는 썸인데, 경홍은 이에 대해서 비록 십성을 아울러 구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십념을 이미

39)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c), “有說除即對佛說五逆罪決定故 生即對佛說五逆等皆不定故 此亦不然 不善順生後受業等皆應例此五逆罪等便成大過故”

40) 慧遠, 『觀無量壽經義疏』 卷末 (『大正藏』 37, 185c-186a), “問曰如大經中五逆不生。今此何故五逆亦生 釋言隨人不同故爾 若是宿世無道根者現造五逆終無生理 若是先發菩提心人 雖復遇緣造作五逆四重等罪 必生重悔如世王等亦得往生”

41)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c), “有說若宿世中無道機者 既作五逆終無生理……又彼善趣即十信故作逆謗法必無此理”

42)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 (『大正藏』 37, 151c), “有說一念念佛者除十念念佛者生 此必非也 即違此云乃至十念故”

갖추고 있으면 『관무량수경』에서도 왕생에서 제외된다고 하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그는 『무량수경』에서 오역자가 왕생에서 제외된다고 설했던 것은 상품삼생 가운데 역죄를 지은 자가 없기 때문이고, 『관무량수경』은 하품하생을 위한 설이었기 때문에 오역죄인도 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오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만약 심념을 갖추면 또한 왕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긋남 없이 옳은 해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모름지기 왕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공덕을 닦기 때문인데 이들은 이미 역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정법을 비방하는 죄는 이미 깊고 무거워서 무수겁에 걸쳐 고통스런 과보를 받을 것이며, 설사 심성을 갖춘다 해도 왕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홍은 정법비방자가 왕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異說이 없다고 확인한다.⁴³⁾

(14) 十念을 『彌勒所問經』의 十法으로 보는 문제

어떤 설⁴⁴⁾에서는 『무량수경』의 十念은 『미륵소문경』에 나오는 十法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경홍은 『미륵소문경』의 십법은 범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上品三生조차 닦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경홍은 『無量壽經』의 十念은 『관무량수경』에서 지적한 十念과 같다고 주장한다.⁴⁵⁾

43)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1c-152a), “有說除者具十不具十悉不得生故 生者唯具十聲故 此亦不然……假具十聲必不得生 所以聖教 更無異說 入諸不善者過難多故“

44) 元曉, 法位, 義寂이 모두 『무량수경』의 심념을 『미륵소문경』의 십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45)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2a), “有說此經十念依十法而念 非佛名故即彌勒所問十念是也此亦不然 彼經十念即非凡夫 必非上品三生所能修故 今即還同觀經十念 上輩亦修十念 理無違故 欲顯一二等言乃至故”

지금까지 살펴본 제18원과 관련된 여러 설에 대해 경홍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경홍은 『무량수경』의 제18원에서 五逆者를 往生에서 제외한 것은 上品三生을 위한 서원이기 때문이며, 『관무량수경』에서 오역자를 왕생에 포함시킨 것은 下品下生을 위한 교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근기에 따른 설이므로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乃至十念’에서 ‘乃至’는 一念부터 十念까지를 아우르기 위한 장치이므로 一念念佛은 왕생에서 제외되며 十念念佛은 왕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十念’은 『미륵소문경』의 ‘十法’처럼 범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도리어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十念의 내용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칭명염불인 ‘十聲’만을 강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의견을 편다. 칭명염불을 往生因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正因’으로 내세워서 十聲을 통해서만 왕생할 수 있다는 편벽된 주장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遠生因’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제20원에 나타나는 ‘別時意說’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2) 제20원

제20원은 ‘係念定生願’이라고 불리며 경홍은 下品衆生을 위한 서원이라고 규정한다. 이 원에서는 ‘別時意說’에 대한 경홍의 해석이 결들여진다. 『무량수경』의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設我得佛 十方衆生 聞我名號 係念我國 殖諸德本 至心迴向 欲生我國 不果遂者 不取正覺⁴⁶⁾

만약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지방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모든 덕의 근본을 쌓고 지심으로 회향하였는데도 저의 나라에

46)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268b)

왕생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의 핵심은 왕생발원을 통해 왕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攝大乘論』에 등장하는 ‘別時意說’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염불이나 왕생발원만으로 극락에 왕생한다고 설한 것은 방편설일 뿐이라고 한다.⁴⁷⁾ 세친의 『攝大乘論釋』에서는 금전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一金錢이 千金錢이 된다는 말은 한푼 두푼 쌓여서 결국에는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한 푼이 곧 큰돈이라는 뜻은 아닌 것처럼 발원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말도 그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⁸⁾

경흥은 별시의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원이건 염불이건 왕생의 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遠生因’, 즉 ‘언젠가는 왕생할 수 있는 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중생이 서원을 세우고 염불을 하면 化土에 왕생한다고 하였다.⁴⁹⁾ 이러한 입장은 제35원의 해석에도 반영된다.

3) 제35원

‘女人成佛願’이라고도 부르는 제35원에 경흥은 ‘遠離譏嫌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친의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을 살펴보면 정토에서는 ‘譏嫌過’⁵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아마도 이 내용을 참고하여 願名을

47) 『攝大乘論』 卷中(『大正藏』 31, 141a), “二別時意趣 謂如說言若誦多寶如來名者 便於無上正等菩提已得決定 又如說言由唯發願便得往生極樂世界“

48) 『攝大乘論釋』 卷五(『大正藏』 31, 346a), “別時意趣者 謂此意趣令懶惰者 由彼彼因於彼彼法精勤修習 彼彼善根皆得增長 此中意趣顯誦多寶如來名因 是昇進因 非唯誦名 便於無上正等菩提已得決定 如有說言由一金錢得千金錢 豈於一日意在別時 由一金錢是得千因故作此說 此亦如是 由唯發願便得往生極樂世界 當知亦爾”

49)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2a), “若願若念皆於淨土是遠生因故 不爾即違密意說言 前已說故 若諸衆生起願念佛即生化土故“

50)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大正藏』 26, 232a) “淨土果報離二種譏嫌過 應知 一者體 二者名 體有三種 一者二乘人 二者女人 三者諸根不具人 無此三過故名離

지는 듯하다. ‘譏嫌過’란 二乘人, 女人, 모든 불구자들의 몸을 받고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무량수경』 원문의 제35원의 내용을 살펴보자.

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其有女人聞我名字。歡喜信樂發菩提心厭惡女身。壽終之後復爲女像者。不取正覺⁵¹⁾

만약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시방의 한량없이 많은 불가사의한 재벌세계에 여인이 있어 저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여 믿고 즐거워하여 보리심을 발한 사람이 여인의 몸을 받기 싫어하는데도 목숨이 다한 후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는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

제35원은 여인의 몸을 받기 싫어하는 중생을 위한 서원이므로 경홍은 ‘遠離譏嫌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여기서는 정토에 여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먼저 『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에서 아미타불에게 부모가 있다고 한 것을 보고 이는 穢土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아미타불에게 부모가 있다고 한 것은 아미타불의 정토가 變化土이므로 잘못이었다고 한다.

경홍은 또 이렇게도 주장한다. 아미타불이 본래 다른 국토에서 胎生身으로 태어났다가 보살행을 닦고 ‘尊音王佛淨土’에 가서 성불을 이룬 것이다.⁵²⁾ 즉 본래 태어난 곳은 부모도 있는 곳이지만 결국 성불을 이룬 상태에 머무르는 곳은 여인이나 二乘 등이 없는 ‘他受用土’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홍은 이 두 입장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한다. 여인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부처님의 어머니처럼 변화신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와 둘째, 『悲華經』을 인용하면서 『法華經』의 용녀처럼 태어나기는

體譏嫌 名亦三種 非但無三體 乃至不聞二乘女人諸根不具三種名故 名離名譏嫌等者平等一相故”

51)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268c)

52)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2c), “今阿彌陀佛蓋亦餘國受胎生身修菩薩行 往尊音佛淨土而成佛道故”

이 세계에서 태어나지만 수행 후 타방정도에 왕생하여 등정각을 이루는 경우와 같이 본래는 여인의 몸이었으나 수행의 과보로서 왕생하여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⁵³⁾

지금까지 『無量壽經』의 48원에 대한 경홍의 주석을 살펴보았다. 48원 가운데 비교적 긴 주석이 달려있는 제18원, 제20원, 제35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서원의 주석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제18원에서 칭명염불에 대한 경홍의 시각은 제20원의 별시의설과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제35원에서 정도를 변화토라고 보면서도 타수용토라고 보는 태도에 다시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서 경홍의 사상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III. 경홍의 48원 해석의 입장

경홍이 저술한 『無量壽經連義述文讚』은 『무량수경』의 주석서이다. 그는 다른 정토소의경전인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 대한 주석서도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연의술문찬』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토사상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홍이 『연의술문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考에서 살펴본 『연의술문찬』의 48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경홍의 사상적인 입장이 드러난다. 경홍은 법상종의 승려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저술 목록이나 『연의술문찬』에서 인용한 저술들의 목록을 보면 유식계열 저술들이 주를 이룬다. 그가 48원을 해석할 때도 대표적인 유식사상가인 世親의 『攝大乘論釋』이나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3) 『無量壽經連義述文讚』 卷中(『大正藏』 37, 152c), “今之所存自有二義 初即彼佛雖復有母而是變化唯佛孤有故……法華龍女亦一類是也 本願不同應現異故”

이처럼 경홍이 48원을 해석하면서 드러난 그의 사상적 특징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먼저 경홍은 『무량수경』의 제18원에서 五逆者를 往生에서 제외한 것은 上品三生을 위한 서원이기 때문이며, 『관무량수경』에서 오역자를 왕생에 포함시킨 것은 下品下生을 위한 교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근기에 따른 설이므로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무량수경』의 제18원에 등장하는 ‘乃至十念’에서 ‘乃至’는 一念부터 十念까지를 아우르기 위한 장치이며,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사상가들과는 달리 『무량수경』의 ‘十念’을 『미륵소문경』의 ‘十法’처럼 범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十念의 내용과 같다고 주장한다. 즉 두 경의 십념이 모두 칭명염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칭명염불은 왕생발원과 함께 往生因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遠生因’, 즉 ‘언젠가는 왕생할 수 있는 因’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중생이 서원을 세우고 염불을 하면 ‘化土’에 왕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攝大乘論』에 등장하는 ‘別時意說’과 관련이 있다.

별시의설에 의하면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는 ‘他受用土’이다. 따라서 하열한 근기의 중생은 왕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염불이나 왕생발원만으로 극락에 왕생한다고 설한 것은 하열한 근기의 중생이 往生因을 닦는데 나태해질 것을 경계하여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라고 한다. 경홍은 별시의설을 근거로 하여 두 경전을 서로 모순없이 이해하기 위해 정토를 본래 타수용토인 정토 안에 변화토가 존재하는 이중구조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정토 안에 여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제35원을 해석할 때도 정토를 이중구조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다. 여인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어머니처럼 변화신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와 『法華經』의 용녀처럼 태어나기는 이 세계에서 태어나지만 수행 후 타방정토에 왕생하여 등정각을 이루는 경우와 같이 본래는 여인의 몸이었으나 수행의 과보로서 타수용토에 왕생하여 여인의 몸을 받지 않

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정토를 타수용토로 해석하기도 하고 변화토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은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내용의 차이이기도 하고, 법상종이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두 경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경홍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往生因이 달라지고 따라서 과보로서의 정토 또한 차별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여 정토를 타수용토와 변화토의 이중구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48원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IV. 맺음말

정토사상의 교학적 연구와 신앙적인 대중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정토사상사의 입장에서는 황금기였음에 틀림없다. 다양한 교파의 승려들이 제각기 자신의 저술 안에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토관련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만들어냈다. 당시 승려들의 교학적인 연구가 이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지만, 현전하는 저술이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讚』은 현전하는 저술 가운데 가장 긴 저술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무량수경』의 문장에 따라 주석을 다는 형태였고, 경홍이 『연의술문찬』을 저술하기 이전의 주석서를 두루 섭렵하여 문제가 되는 의견을 인용 후 비판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면밀하게 연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考에서는 『연의술문찬』 가운데서도 『무량수경』의 48원에 대한 주석부분만 살펴보았다. 비교적 긴 주석이 달려있는 제18원, 제20원, 제35원에 대해

집중하였는데, 경홍은 제18원에 대한 논의의 핵심인 ‘乃至十念’과 ‘五逆者往生問題’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량수경』의 내용과 『관무량수경』의 내용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根機에 따른 교설이라는 입장을 폈다.

‘乃至十念’의 경우, 『무량수경』의 ‘乃至十念’의 十念을 『관무량수경』의 ‘具足十念’의 十念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즉 두 경의 십념이 모두 ‘칭명염불’이라고 본 것이다. 또 『무량수경』에서는 왕생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던 오역죄를 범한 자가 『관무량수경』에서는 왕생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上品三生을 위한 서원일 때와 下品下生을 위한 교설일 때의 차이로 인식했다.

특히 하품하생의 중생을 위해 설해진 『관무량수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원이건 염불이건 ‘遠生因’일뿐이며, 만약 왕생발원을 하여 염불하면 ‘化土’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토는 ‘他受用土’로서 ‘報土’이지만 그 가운데 ‘變化土’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攝大乘論』에 나오는 ‘別時意說’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제19원에서 菩提心을 발하지 않으면 聖衆의 來迎引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는 같은 맥락이다. 또 ‘別時意說’은 제20원 및 제35원의 해석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칭명염불이 遠生因일지언정 往生因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정토를 보토와 화토의 이중구조로 이해함으로써 정토에 왕성한 정정취의 계위를 낮게 잡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경홍이 처음부터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정토사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토사상을 다른 사상의 토대 위에서 해석하려는 이와 같은 태도는 통일신라시대 저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他力신앙을 강조한 善導계열의 정토사상이 크게 유행했던 중국이나 이를 보다 심화시켜 철저하게 타력 중심적인 종파로 성립된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정토신앙은 自力으로 수행하여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불교사상들의 보조적인 신앙행위인 ‘칭명염불’로서 인식되거나,

‘염불삼매’를 통해 성불이 가능하다는 주장처럼 정토신앙을 自力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정토신앙을 自力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거의 모든 불교종파에서 정토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불교사상들과 함께 유입되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정토사상은 서로 다른 사상적 경향을 지닌 승려들에 의해 교학적으로 연구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외래사상인 불교가 신앙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토사상의 토착화의 과정에서 경홍은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의 왕생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적 토대였던 법상종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 해석하였다. 그 결과 自力を 강조하는 성향과 타력을 강조하는 성향이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내어 칭명염불과 같은 타력적 신앙행위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신앙의 힘이 뒷받침되는 불교사상이 오늘날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도 정토사상의 토착화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Wuliangshou-Jing-Lian-Yi-Shu-Wen-Zan(無量壽經連義述文讚), *Jing-Xing*(憬興), 十念(the ten repetitions of an invocation), 往生因(a cause of being born in pureland), 四十八願(forty eight vows), 稱名念佛(to invoke the name of Amitabha), 自力(one's own strength), 他力(the strength of another), Dharmalaksana School(法相宗)

Forty Eight Vows (四十八願) in
Wu-liang-shou-jing-lian-yi-shu-wen-zan
(無量壽經連義述文贊)

Kim, Yangsoon

The unified Silla period was the golden age in the history of Pure Land Buddhism in Korea. The study of thought in Pureland Buddhism was done by many monks who came from lots of schools of buddhism and,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in Silla society believed in Amitābha (阿彌陀佛). Lots of monks expressed not only their own ideas about both Amitābha and Pure Land in their writings, but also they wrote commentaries on the *Larger Sukhavativyuha* (無量壽經). Among them, *Wu-liang-shou-jing-lian-yi-shu-wen-zan* (無量壽經連義述文讚) written by Jing-xing (憬興) is the longest one that is existing.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forty eight vows of Dharmākara (法藏比丘) in it.

Jing-xing (憬興) made relatively long comments on disputed 18th, 20th and 35th vows. About the 18th vow, he insisted that the differences of viewpoints between the *Larger Sukhavativyuha* and *Guan-wu-liang-shou-jing* (觀無量壽經) were caused by the capability of living things (衆生). That is to say, teachings of *Guan-wu-liang-shou-jing* are suitable for the lowest class (下品下生) and those of the *Larger Sukhavativyuha* are suitable for the three highest of the

nine stages of birth (上品三生).

According to the capability, the cause of being born in Pure Land (往生因) are different. Similarly the land in which they were born as a result are different. To understand them without inconsistency he recognized the pureland as a dual structure of the land of reward (報土) and the land in which is the transformed body of a Buddha (化土).

Although invocation of name of buddha (念佛) is not a direct cause, it could be a cause of being born in pureland (往生因). This point of view is based on the theory of different time (別時意說) in *She-da-cheng-lun* (攝大乘論) which is also the basis of the 20th vow and the 35th vow. It revealed that he commented on the *Larger Sukhavativyuha* from the viewpoint of Dharmalaksana School(法相宗).